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절을 이틀 앞둔 23일 광주 북구청 청년간부회의 소속 공무원들이 북구 양산동 아동복지시설인 해맑은 그룹홈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성탄 선물을 나눠준 뒤 함께 촛불을 든 채 케케를 부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24m 헐고 철구조물로 원형 상징

문광부 옛 도청별관 최종안...30m는 그대로 보존

옛 전남도청 별관 건물 54m 가운데 30m는 원형대로 보존하되 나머지 24m 부분은 골격만을 남겨두고 원래의 건물은 모두 철거, 건물의 형태만을 보존하는 방안이 정부 최종안으로 제시됐다. <관련기사 3면> 이 같은 방안은 그러나 도청별관의 원형보존을 요구해 온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3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6층 추진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청별관 보존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날 추진단이 발표한 최종안에 따르면 길이 54m에 이르는 도청 별관 가운데 도청 본관과 맞닿은 24m 부분은 완전 철거하되, 그 자리에는 강구조물로 원래 건물의 모습대로 골격을 만들어 세우게 된다.

4층 높이의 강구조물 중간에는 2층 높이의 통로가 뚫려 금남로 5·18광장에서 문화전당 내 아시아광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역할을 하게 된다. 강구조물의 색상과 재질, 디자인은 내구성과 전체 건물과의 조화를 감안해 추후에 결정된다. 나머지 도청 별관 30m 부분은 보강공사를 통해 안전도를 높인 뒤 원형대로 보존된다. 이와 함께 도청 본관

과 민원실, 상무관 등 문화전당 내부에서 보존되는 7개 시설은 구조 안전 진단과 리모델링을 거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 추진단의 이 같은 방안은 '도청 별관에서 문화전당 내부 광장을 조망할 수 있는' 개방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원 설계자인 유규승씨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별관 원형을 보존하자라는 안과 일부를 헐고 문을 내자는 이른

바 '오월의 문' 안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도청별관을 원래 형태대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철거한 뒤 상징적으로 '골격'만을 보존하는 방안이어서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병훈 추진단장은 "이번 정부 최종안이 지난 2년 6개월 동안 끌어온 별관보존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상징적 해법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정부가 추가로 수정안을 제시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문화전당이 2014년에 전면 개관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강왕기 광주시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은 "정부의 최종안이 제시된 만큼 먼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주 중 광주시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열달앞 영암 F1 580억 부족

국비 200억 시설비 한정... 운영엔 못써 전남도 자체예산도 100억이나 삭감돼

내년 F1(포틀러인) 코리아 그랑프리 개최에 비상이 걸렸다. 3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회 운영에 꼭 필요한 국비 예산이 운영비가 아닌, 경주장 건설비로 책정되면서 대회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 내년도 'F1 코리아 그랑프리 개최 지원' 명목으로 200억원의 시설비(경주장 추가공사비) 지원 계획을 통보했다. 전남도가 애초 대회 운영비(대회운영 지원)로 파악했던 국비 지원 항목이 경주장 건설비용(시설 지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부는 "대회 운영비로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

졌다. 전남도는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즉각 예산 항목 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등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F1 대회에 필요한 애초 요구액(824억)에 훨씬 못 미치는 200억원만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몫으로 예산이 책정됐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예산 항목 변경으로 국비 지원 운영비(90억원)는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하게 됐고 향후 지원에 대한 기대도 사라지게 된 것이다. 당장 내년 대회 운영비(780억원) 확보에 빨간 불이 켜졌다. 현재로는 전남도가 내년도 자체 예

산으로 확보한 200억원이 전부다. 그나마 30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도의회에서 거부당하면서 200억원만 반영된 상황이다. 여기에 대회운영법인인 KAVO(Korea Auto Valley Operation)가 390억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600억원 가량이던 자본금이 바닥난 상태라 남은 대회를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여기에 대회까지 불과 10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성공 개최를 위한 조직 개편 등 세부 운영 방침이나 홍보 방안, 수익성 창출 계획조차 확정짓지 못한 상태다. 이로 인해 경주장 건설 지원 문제에 미숙한 대회 운영 등으로 '총체적 부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올해에 이어 내년 대회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겠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도 최근 운영비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애초 기대했던 운영비를 국비로 확보하지 못했지만 조속히 대안을 마련,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총력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키스해링 지상전

사랑이 뿜어내는 에너지 느껴지나요

▼무제 (Untitled·15x15 cm·실크스크린·1987년)

대중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키스해링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다. 화면 중앙에 크게 자리한 붉은 하트는 두 사람의 우정과 믿음, 그리고 사랑을 의미한다.



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점점 선들은 사랑이 뿜어내는 에너지를 상징한다. 키스해링의 작품과 함께 사랑과 나눔의 크리스마스 정신을 느껴보자. '팝아트 슈퍼스타, 키스 해링'전은 내년 2월 27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에서 계속된다. (062)613-5396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12월 1일~1월 7일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2의 창학원년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 내 꿈에 하나 더!

다양한 강의방법 (TV, 멀티미디어, 출석수업 등)  
 등록금이 저렴하다 (일반대학 1/10, 사이버대학 1/5)  
 연계전공 운영으로 "사회복지학사" 취득  
**내 꿈을 더하고 키우는 대학,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내 꿈에 하나 더!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1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모집일자: 2010. 12.1(수) ~ 2011. 1.12(수)  
 입학상담 | 광주전남지역대학 062)973-5100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knou.ac.kr) 참조

시인을 꿈꾸는 제초 피아니스트 이노경 (국어국문학과)  
 영화감독을 꿈꾸는 한의사 최현민 (미디어영상학과)